

기술위원회 활동



박재원
대한컨설턴트 이사

토기회는 토질및기초기술사들의 모임으로 기술사들의 기술공유 및 전문적 기술향상을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위원회는 굴착, 연약지반, 사면, 터널, 시공, 준설매립/하천, 기초 등 총 7개의 전문분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은 각 전문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이 사회에 인준 요청하는 과정을 통하여 기술이 우수하고 해당분야의 경력이 많은 회원을 전문위원으로 선임하여 위

촉하고 있습니다. 각 전문분과의 위원회는 정기적인 모임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학회와 단체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계획하게 됩니다. 특히 가을기술발표회에서는 각 전문위원회에서 논의 되었거나 소속된 전문위원들의 학문적 또는 기술적 연구사례, 설계 및 시공사례 등을 발표하여 활발한 기술교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4일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자이 갤러리에서 사단법인 한국 토질 및 기초 기술사회 기술위원회 주최로





봄 기술발표회 및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본 회 회원 13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14개사의 광고협찬이 있었습니다.

이날 봄기술발표회의 주제는 “녹색성장기술 및 신재생에너지”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기술발표회는 총 42명의 위원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총괄위원장은 본 회 회원이신 상지대학교 이승호 교수가 맡아주셨습니다. 이날 정기총회는 박재원 기술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 하였으며 김학정 회장님의 개회사와 황우여한나라당 국회의원님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논문발표가 시작 되었습니다.

기술발표회 1부에서는 녹색성장기술—풍력 및 조력발전을 주제로 하여 총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어진 2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총 4편의 논문이 발표 되었으며, 발표가 끝난 후 상장과 부상 수여가 있었습니다. 최우수 논문으로는 해상풍력발전 하부기초설계를 위한 지반공학적 고찰이 선정 되었습니다.

2011년 11월17일(목)에는 방이동에 소재한 쌍용건설의 도시재생전시관에서 가을기술발표회 및 임시총회가 성황리에 개최 되었습니다. 김학정 회장의 인사말로 기술발표회가 시작되었으며 쌍용건설의 조현 상무의 환영사, 한영성 한국기술사회 회장, 장연수 지방공학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이병주 박사가 ‘화산활동과 백두산’이라는 제목으로 초청강연이 이어졌으며 점심식사 후 각 전문분과별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총 1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최우수논문으로는 대심도 연약지반에 대한 압밀정수 평가 연구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봄, 가을에 개최되는 기술발표회를 가을기술발표회로 예정되어 있으니 회원님들께서는 실전에서 이루신 좋은 성과들을 많이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